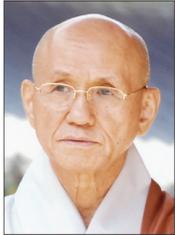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7월23일 김제 금산사를 찾아 월주 스님의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문도대표를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한국불교 산증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 입적

7월22일 금산사에서...세남 87·법랍 68년
 17·28대 총무원장...불교개혁 이끌어
 소외이웃에 자비행 실천한 종교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정치권 등 조문 잇따라



원장에 선출된 스님은 불교자주화에 역점을 뒀다. “불교정화운동과 1970년대 거듭된 종단분규를 거치면서 부당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교는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스님은 직시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총무원장 당선과 동시에 스님은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불교 관련 규제법령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울다고 믿는 일에는 물러섬이 없었던 스님의 ‘대쪽같은’ 성품은 그해 발간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신군부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모두가 숙종하고 있었지만, 스님은 종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광주지역을 방문해 희생자를 위로하는 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로 인해 스님은 신군부가 자행한 ‘10·27법난’으로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天地本太空(천지본태공)/一切亦如來(일체여래)/唯我全生涯(유아전생애)/即是臨終偈(즉시입종계)/唵(할)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입종계가 아닌가./ 할! (태공당 월주 대종사 입종계)

조계종 17·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원로의원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7월22일 오전 김제 금산사 만월당에서 입적했다. 세남 87세, 법랍 68년.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스님은 불교계 뿐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지도자였다. 해방 이후 한국불교가 격동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그 중심에서 한국불교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했던 현대한국불교사의 산증인이기도 했다.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20대에 김제 금산사 주지를 맡아 불교정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66년 조계종 2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되면서 30대부터 종단의 전면에 나섰다. 1980년 4월 종단분규를 수습하고 총무

‘나눔의집’을 설립해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섰으며, ‘지구촌공생회’를 세워 동남아 등 빈곤국 국가지원 사업에도 나섰다. 이런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무궁화장, 캄보디아 국왕훈장, 조계종 포교대상, 만해대상, 민세상,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출가 이후 구순에 가깝도록 불교 변화와 사회 활동에 전념했던 월주 스님의 입적 소식에 불교계 안팎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이 금산사,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 등에 마련한 분향소에는 월주 스님의 입적을 추모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7월 23일 오후 금산사를 찾아 월주 스님의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문도대표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여야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도 줄을 이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전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아 헌화했다.

SNS를 통한 추모의 글도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세상과 함께 호흡하신 스님의 생은 저희에게 죽비와 같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주 스님의) 차별, 냉대,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었다”고 추모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스님이 남긴 그 자취를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 관련기사 및 사설 3·4·23면 권영기자 oyemc@beopbo.com

상월선원 자비순례로 확산된 걷기 수행으로 승화되며 불교중흥 전인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발적 의지 표현
 순례대중 의지해 어려움 극복·신심 증장
 “결집된 대중 원력 전법으로 이어질 것”

한국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지며 다시 한번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순례는 승보총찰 승광사에서 범보총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총찰 통도사로 이어지는 ‘삼보사찰’에 무게가 실린 만큼 걷기를 통한 순례가 새로운 수행문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불교에서 걷기는 오래전부터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돼 왔다. 선원에서는 경문을 외우며 가볍게 걷는 ‘경행(經行)’이나, 화두를 잡고 걸으며 참선하는 ‘행선(行禪)’ 또는 ‘포행(步行)’이 오늘날까지도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빠사나에서도 ‘경행’은 ‘알아차림’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법의 하나로 손꼽힌다. 수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 ‘대념처경’에서도 ‘수행자는 걸어갈 때 나는 걷고 있다고 알아차릴 것’을 제시하며 걷기가 곧 수행의 일환임을 말하고 있다.

순례 또한 수행과 수행의 중요한 방편이다. 팔리어 ‘열반경’과 ‘유행경’, 한역 ‘대반열반경’ 등에서는 모든 불교도들에게 4대 성지순례를 권장하며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다름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교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걷기와 순례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걷기가 곧 수행으로 인식되기도 했다”며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걷기라는 고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 역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른 누구의 힘이나 도구에 의지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행 통행에서만 다룰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계기로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걷기 수행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창 선운사를 시작으로 매월 본·말사 중심의 걷기명상 성지순례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합천 해인사 사부대중이 수미산원정대와 함께 자비순례를 봉행했다. 의정부 정혜선원도 매월 걷기 명상을 주제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남양주 봉선사에서 ‘천년 숲을 걷다, 자비순례’,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국난극복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이처럼 수행과 수행으로 승화된 ‘걷기’는 불교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실천행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자비순례와 올해 천리순례로 이어지며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21일간 500km 여를 걷는 자비순례 대장정을 결행하며 “얕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 미래불교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한다”고 선언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걷기 순례가 불교중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명시했다. 자승 스님은 이후에도 “상월선원과 만행결사는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한 실천행”임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3년간 108명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겠다고 원을 세웠다”고 말해 걷기로 집약된 불교의 힘을 전법과 불교중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호산 스님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말에 그친다”며 “스스로 내딛는 한 걸음, 대중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걷기 순례는 전법의 원력을 이끌어내 불교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수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인사 2면 남수연기자 namsy@beopbo.com

박범훈 원장 “합창단 종교편향 바로잡을 것”

7월20일 불교음악원장 재위축 때 밝혀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재위축된 박범훈 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시립합창단 종교편향 선곡과 관련해 “불교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7월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

혔다. 이날 박 원장은 불교음악원과 조계종 사회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 합창단 공연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사항도 설명했다. 불교음악원은 현재 윤소희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국 지자체 합창단이 최근 3년간 공연했던 곡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 중이다. 지자체 별로 마련된 관련 조례도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전수조사 보고서는 9월 초 완료되며, 8월 중순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 전장에서 달을 보다 ‘덕진 스님’ - 7면

임은호기자 eunhoic@beopbo.com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第28代 總務院長을 歷任하시고
 現 元老義員이신 太空堂 月珠大宗師께서 世尊을
 다 하시어 佛紀2565(2021)年 7月 22日(陰 6月 13日)
 午前 9時 45分 全北 金堤 金山寺에서
 法臘 68年, 歲壽 87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道永 合掌

- 焚香所: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地域焚香所: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
- 永訣日時: 佛紀2565(2021)年 7月 26日(陰 6月 17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茶毘場: 母岳山 金山寺 蓮花臺
- 連絡處: 母岳山 金山寺 (063)548-4441

※ 코로나19로 인하여 숙박 및 공양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